

“똥막대기를 마음껏 물어뜯어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운문 선사께서 해제를 하고 만행 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름 결제 때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형주의 남쪽에서 금(金)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나누어 가졌느냐?”
남자가 양손을 펴보이자 말씀했습니다.
“기와조각이구나.”
“스님께서 별 것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마른똥막대기(乾屎臘)를 마음대로 물어뜯어라”

이 남자는 결제동안 열심히 정진하여 공부 좀 한 것이 금덩어리인줄 알고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만행길에 운문산에 들러 자랑스럽게 운문 선사에 게 내보였는데 그것이 기와조각에 불

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방법을 물었더니 “마른똥막대기를 물어뜯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운문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하시불(如何是佛)이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간시궤(乾屎臘)이니라. 마른똥막대기이니라.”

똥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찮은 것 인줄 모를 때는 그것이 금 인줄 압니다. 똥도 누렁고 금도 누렁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금인 줄 알았는데 똥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금이지만 법에 대한 집착은 똥입니다. 그러나 안목이 열리지 않는 범부승은 ‘법’과 ‘법에 대한 집착’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과 금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똥과 금은 둘이 아닙니다. 번뇌의 똥을 치우면 보리의 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림의 해제대중들은 만행길에 선지식을 만나거든 내가 지난 결제동안 공부한 것이 금인지 똥인지를 제대로 점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제길이 또 다른 결제길이 되는 것입니다.

撒屎撒屎灑灑事 똥 오줌 뿌리는 짓 거리는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다.
浩浩誰分臭與香 이는 끝이 없거든 누가 향기와 악취를 구별해 내겠는가.

“오매일여”는 선수행 기본, 논쟁 무의미”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전략) 요즘 불교학자들 사이에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痲痲一如)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禪門正路)>란 책에서 오매일여(痲痲一如)와 동정일여(動靜一如)를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오매일여란 잠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처럼 수행의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동정일여란 일상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선수행의 기본자세를 제시한 말씀으로 이 말이 논쟁거리

가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이 만든 기호로 사물을 개념화하여 인식과 사고의 소자(素資)를 제공할 뿐 언어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략) 불교의 궁극적 존재가치는 인생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여 올바른 지견을 얻고 모든 중생들의 불성(사무량심)을 현발케 하여 바르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욕만을 탐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세속의 현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서곡(曲)일뿐이지요. 이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교정하여 참으로 잘사는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

말로 수행자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남자여러분은 이 법회를 마치고 나면 발양(鉢囊)을 걸머지고 만행에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행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처불택(住處不擇), 동정일여(動靜一如)의 수행 자세를 잃지 않고 응자화려(應自諷勵), 법지진덕(法持進德)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세상(世)속으로 들어가 받고여락(拔苦與樂)의 보살행을 실천하여 중생과 고통을 함께 하는 살아있는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보살의 본회(本懷)요. 출가수행자가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부디 명심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見色聞聲是本心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이것이 나의 본래 마음이지늘,
將金何必更求金 금을 갖고 있으면서 왜 또 금을 찾는가.
波無異水君知否 파도와 물이 다르지 않음을 그대는 아는가.
身是全心莫外尋 몸이 바로 마음이니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마시오.

“아만 끊고 남의 잘잘못 말하지 말라”



보성 스님 조계총림 방장

오늘은 하안거 해제(三夏安居解制) 날이다. 지난 90일(九十日)이 정중공부(靜中工夫)를 위주(爲主)로 한 기간(期間)이라면 앞으로 90일(九十日) 동안은 동중공부(動中工夫)를 위주(爲主)로 하는 기간(期間)일 뿐 공부(工夫)에 간단(簡斷)이 있어서는 안된다.

學道先須絕我慢 處衆莫論他長短 我慢工夫養生死 處衆是非油入火 永斷我慢絕是非 成就人天大丈夫
도를 배우려거든 먼저 아만부터 끊고 대중에 살면서 남의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아만을 가지고 공부하면 생사만 더하고 대중에 살면서 시비를 일삼으면 기

름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아만을 아주 끊고 시비를 하지 않으면 천상인간의 대장부를 꼭 이룰 것이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방해한다지만 우리는 상대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외도들이 욕하거나 때려도 묵빈 대지하라고 하시지 안했던가. 불법은 다른 종교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사자물을 묵속에서 벌레가 생겨서 먹어버리듯 불법도 불법안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魚行水濁 鳥飛毛落
고기가 움직이면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면 털이 떨어지느니라.
주장(拄杖)을 한번 구르고 하좌(下坐)하다.

“오고 감이 없는 참 주인공 바로 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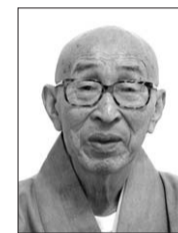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元來這箇非心色 空說色心惱後人 莫問此時心與色 好看家裡舊主人

(중략) 오고 감이 없는 참 주인공을 어찌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문밖을 나서는 것입니까?
나가는 걸음을 안으로 되돌려 한번 바라보세요.

萬里江山毘盧臥 百草頭上觀音舞 山山水水說無生 花花草草放自光
끝없이 펼쳐진 강산은 비로자나가 누워있는 것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온갖 풀꽃은 관세음의 춤사위로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무생의 도리를 성하고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광명을 놓고 있구나.
오늘 해제가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되었다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분사 깨닫기 위한 발심과 노력 해야”



지중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무더운 날씨에 삼하(三夏) 안거(安居)를 지내느라고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모름지기 결제(決制)와 해제(解制)가 분명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결제와 해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자는 진정한 결제와 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결제는 일체 모든 세간 잡사(雜事)로 향하는 마음을 끊고, 본분사(本分事)를 깨닫기 위한 발심과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제는 무엇입니까?
(중략) 수행자들은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편 수행을 닦을 수 있겠으나, 옛부터 조사 스님들께서 오직 화두 정진을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제시하셨으니, 일체시 일체에서 오로지 화두 일념으로 몰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화두와 함께 살고 화두와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선 수행자들은 화두를 드는 때가 결제요,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하는 때가 진정한 해제입니다.
오늘 해제 했다고 해서, 마음 풀고 놓고 화두는 심판팔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린다면, 어느 때나 여러분들 자신을 삼계(三界)의 속박으로부터 해제시킬 기약이 있겠습니까?
요즘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때에 임해서도 정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나, 잡스런 세간사(世間事)는 접어두고 오로지 항상 일로(向上一路)하는 대장부가 되어 삼계(三界)에 독보(獨步)하시길 바랍니다.
千計萬慮莫 모든 계교와 사랑분별이 紅爐一點雪 雲峯로에 한점 눈이요, 泥牛水上行 진흙 소 물 위로 달리고 大地虛空裂 하늘 땅이 갈라지도다.



불기 2552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헌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2년 9월 1일 ~ 9월 3일(음 8월 2일 - 8월 4일)
- ◆ 입 재 : 불기2552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입소등록 당일 오후 3시까지 완료요망)
-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세면도구
-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2)443-5078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952-1074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 대한불교대승종 각지방총무원
대한불교대승종 중앙총의회 · 대한불교대승종 전국신도회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암 혜심 합장

스님! 병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병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8월 20일 수요일만 , 22일 금요일만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송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략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